지금도 어디선가 공포에 떠는 미취학 아동들

2016년 '원영이 사건' 계기로 만든 매뉴얼 무용지물
광주·군산 등 잇단 참변에도 사회적 보호시스템 없어
피해 우려 가정 주기적 방문·관리 등 대책 마련 시급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화재로 큰 아들(4), 작은 아들(2), 막내 딸(15개월) 등 삼남매가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삼남매가 살았던 아파트를 조사한 한 경찰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삼남매의 엄마 정모(23)씨는 어린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가 하면, 아빠(22)는 4시간 넘게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등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아동 학대 이후 숨진 채 암매장된 고준희(5)양 역시 친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다가 숨졌다.

특히 친부 고씨는 지난해 3월 내연녀 이씨를 귀찮게 한다며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반복해서 밟았고, 발목에 상처를 입은 준희양은 이때부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탓에 대상포진까지 번진 상처에서는 고름이 연신 뿜어져 나왔지만, 고씨는 치료는커녕 '아프다고 칭얼댄다' 등의 이유로 손찌검을 일삼았다. 준희양은 친부와 내연녀의 폭행 속에 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지난해 4월 26일 끝내 숨졌다.

목포에서도 지난해 20대 남성이 동거녀의 5살 난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광양에선 20대 부모가 2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미취학 아동과 관련한 끔찍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 등 보호자의 무성의한 양육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미취학 아동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진학 이전의 아동인 미취학아동의 경우 최소한의 자기보호 능력조차 없다는 점에서 '피해 우려 아동 가정'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방문·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3일 광주지역 각 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미취학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아동학대를 받다가 숨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2일 이상 이유없이 결석시 교직원이 가정방문 후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매뉴얼이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초등학교와는 달리 의무교육이 아닌 탓에 부모가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장기간 결석을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순영 광주YWCA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의 부모가 여행 등으로 잠시 쉰다고 할 경우 어디를 어떻게 왜 가냐고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가정폭력 등의 상황이나 흔적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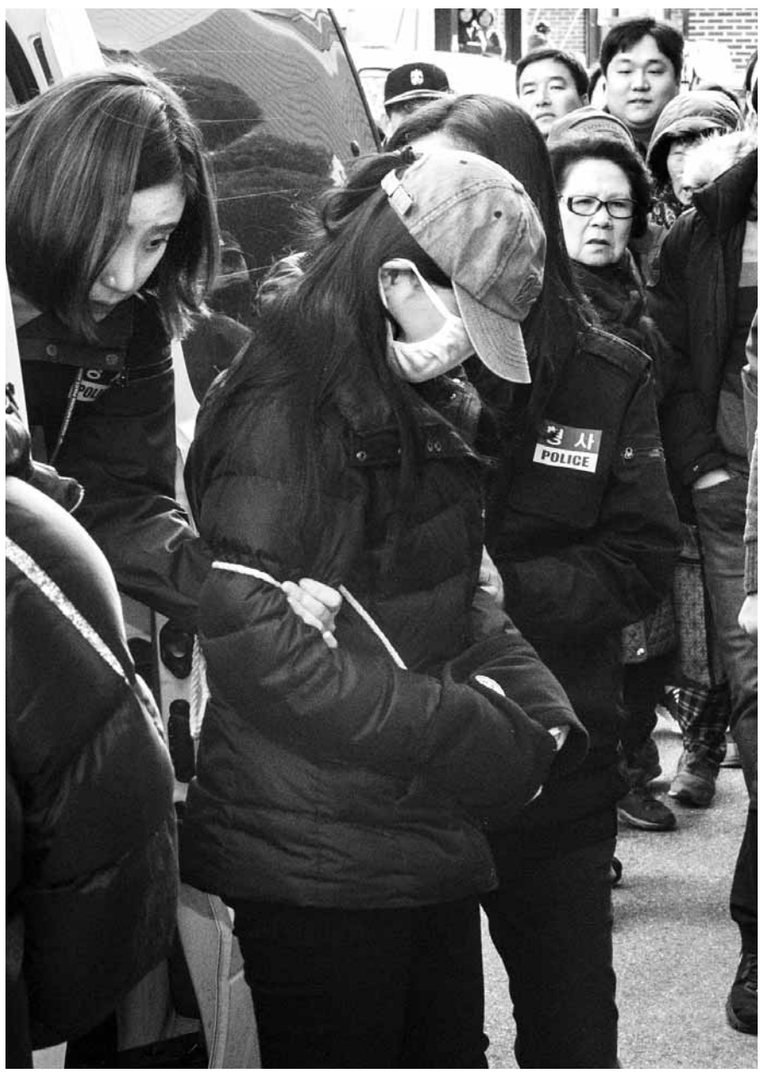
문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이다.

자치구에서는 출생신고 직후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양육 상태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현재 관리시스템이 없는 만큼 아이들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아과에서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의 신체 등 양육 상태를 검진해야한다는 의견 등도 내놓고 있다.

이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를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거나 성인들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같이 1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무조건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실화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정모(여·23)씨가 3일 현장검증을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3남매 영결식도 못 보고…엄마는 현장 검증

화마 휩쓴 현장 처참…50여분간 상황 재연

삼남매가 화재로 참변을 당한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불을 내 삼남매(4·2·1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정모(여·23)씨는 3일 광주북부경찰이 진행한 현장검증에서 당시 상황 등을 재연했다. 이날 열린 화장식에서 삼남매는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났다.〈광주일보 2일자 6면〉

청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패딩을 입은 정씨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겠다. 동의하느냐"는 경찰의 고지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마가 휩쓴 현장은 처참했다. 현관에는 5가족의 신발 10여켤레가 널부러져 있었고 거실 천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다.

정씨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이들이 잠자던 작은방 앞 거실에서 담배를 끄는 행동까지 50여분간 당시 상황을 보여줬다.

경찰관은 취재진에게 "정씨가 경찰의 질문에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며 "그동안의 수사내용과 현장 검증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불을 냈다'고 자백한대로 그대로 재연했다"고 전했다.

현장 검증에 한 시간 앞선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에서는 삼남매의 화장식이 엄수됐다.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해 경찰은 정씨에게 자녀의 화장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장례 없이 치러진 화장식에는 아빠 이모(22)씨, 친가·외가 조부모 등 유가족이 참여해 삼남매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중과실치상·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려시멘트 싱크홀 인근 광산개발 장성지역 시민단체 법적 대응 나서

郡, 지반침하 조사 조건부 승인

장성 지역 시민단체가 고려시멘트의 석회석 광산 개발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고려시멘트가 제출한 '개발행위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주변에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이 채굴에 따른 것인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뒤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이다.

고려시멘트측이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 건동광산은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권·채굴권과 전남도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다. 군이 새롭게 승인한 건은 진입로와 적치물 등 제반 시설에 대한 '행위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허가'로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성시민연대와 고려시멘트 폐쇄 공동 황룡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의혹의 해결을 위해 장성군의 승인에 대한 행정심판과 더불어 허가 무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싱크홀(Sinkhole·땅꺼짐)이 고속철과 가까운 곳에 발생했는데도 고려시멘트는 광산과 무관하다며 주변에 관정을 파 시멘트 3000포 이상 들여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경작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등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장성군의회는 싱크홀 발생 현장, 건동광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의 황룡면 와룡리 반경 1㎞ 부근에 반경 5~10m, 깊이 2~3m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광산의 발파 충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시멘트 측은 "싱크홀은 광산 발파와 무관하며 지하수 이동에 따른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중퇴 학력 재학기간도 기재 헌재 공직선거법 규정 합헌"

선거 출마자가 중퇴학력을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경우 학교에 다닌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전 군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64조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4조는 후보자가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 재학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중퇴학력을 표시하면서 재학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서남대 교수들이 신청한 폐쇄명령 집행 정지 기각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이날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폐쇄를 계고했지만,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데다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며 올해 2월 말로 폐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수협 등은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우시장서 사온 소 탈출소동…소방구조대 출동 진땀 포획

쌍나팔

○…광주의 한 마을에서 몸무게 0.4t짜리 황소가 탈출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

○…3일 광주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4분께 광주시 북구 망월동 인근 농촌마을에서 우시장에서 사온 소가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축사 밖으로 탈출, 마을도로를 휘젓고 다녔다는 것.

○…119신고 접수 후 30여분 만에 소를 포획한 소방 구조대는 "소가 새 주인 손에 길들지 않은 탓에 육중한 몸을 이끌고 제멋대로 돌아다녀 포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무리한 포획으로 대원이나 소가 다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우보이처럼 4m 길이의 목줄을 활용한 게 효과를 봤다"며 안도의 한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19822	1	나주시 이창동 산2-9 에이동 4층 404호 55.31㎡[대지권미등기및유무불명[현재구분건물소유자는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토지예관한별도지분이없는것으로조사됨]	아파트	35,000,000 35,000,000	최저매각가격에대지권가격이포함됨
2017타경9822	1	서구 풍암순환로10, 201동 9층 905호[풍암동,풍암지구호반,중흥아파트] 59.46㎡	아파트	160,000,000 160,000,000	
2017타경63116	1	광산구 장덕로6번길59, 101동 9층 901호 [장덕동,장덕마을부영애시앙] 84.2801㎡	아파트	231,000,000 231,000,000	
2017타경63390	1	나주시 예향로3793, 6층 605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8,000,000 128,000,000	
2017타경63604	1	서구 치평로35, 209동 12층 1206호 [치평동,금호쌍용아파트] 134.69㎡	아파트	391,000,000 391,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8355	1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68 250㎡	대	50,358,000 50,358,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화순군 화순읍 서라실길 39-4 63.8㎡ 제시외 창고 등 12.5㎡	단독주택		
2017타경9730	1	북구 신안동 229-17 192.4㎡	대	200,011,730 200,011,73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 들재매길 43 1층96.93㎡ 2층66.84㎡ 부속건물 변소 1.2㎡ 제시외 가추 36.8㎡	단독주택		
2017타경9822	2	남구 양림동 22-47 298㎡	대	267,318,000 267,318,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
		남구 양림로89번길4-7 1층99.42㎡ 2층58.24㎡ 지하실34.29㎡ 제시외 창고 등 39.6㎡	단독주택		
2017타경60834	1	동구 필문대로191번길15-2 1층90.87㎡ 2층70.485㎡ 부속건물 창고,변소2.0㎡ 제시외 창고 7.44㎡[제시외건물포함][지분매각]	단독주택	35,657,320 35,657,32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2/11채무자윤종호지분전부
		동구 산수동 517-23 157.7㎡[지분매각]	대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7타경8553	1	광산구 송정공원로11번길21, 401호 [소촌동,파크하우스] 84.83㎡[등기부상373.08㎡이나,집합건축물대장상375.46㎡.일부[북측]증축되었으나,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건축물현황도에는증축부분미표시됨.대지권면적비율이전유면적대비115.7%수준이나,본건증축으로인해전유면적대비72.1%임]	다세대	168,000,000 168,000,000	2017.8.16이장국으로부터본건증축개보수공사에대해공사대금65,000,000원유치권신고서제출,성립여부불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23104	2	광산구 산막동 298-10 1126㎡[현황잡종지]	답	87,120,000 87,120,000	일괄매각.현황잡종지.슬러지보관소및이동식자동세륜기는매각제외.대류1류에저촉됨
		동소298-14 458㎡[물건번호2:농지전용허가[2017.7.24신청자:한국도로공사,목적:광주순환외곽고속도로].향후원상회복명령발할가능성있음.경계구분불명고속도로자재적치	답		
	3	동소 298-11 95㎡	답	101,824,000 101,824,000	일괄매각.현황잡종지.슬러지보관소및이동식자동세륜기매각제외
		동소 298-1 1130㎡	답		
		동소298-8 151㎡[물건번호3:농지취득자격증명요.향후원상회복명령발할가능성있음.경계구분불명,고속도로자재적치]	답		
2017타경3299	1	동구 운림동765 565㎡[2/9은성기지분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전	18,457,320 18,457,32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2017타경4766	1	동구소태동산25-1 2215㎡[이순옥지분265/2215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임야	18,815,000 18,815,000	지분매각.분묘소재.맹지
2017타경63802	1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산99 20331㎡	임야	3,339,140 3,339,140	일괄매각.인접지와지적경계불명,측량요.임야도상맹지.분묘소재여부불명
		동소 산100 7835㎡	임야		
		동소 산109 26678㎡[물건번호1:2/22이승용지분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임야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9488	1	남구 효우2로26번길10, 1동 1층 111호 29.05㎡	근린시설	144,000,000 144,000,000	
[자동차,중기]					
2017타경17489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문산로62번길19-8 [문흥동] 등록번호:69버2089 차명:레이 연식:2013	자동차	5,500,000 5,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7타경67910	1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천변좌로370번길14-3 [구동] 등록번호:03도7045 차명:K5 연식:2017	자동차	21,500,000 21,5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벽진동119-1글로벌주차장
[기타]					
2016타경23104	1	광산구 비아동 63-52 533㎡	대	1,881,367,740 1,881,367,7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목록1지하수관정,목록3액화가스저장탱크인콘크리트구조물포함.목록1및8에매트세척기3종,진공청소기6종등과콘테이너박스1동매각제외.목록3,4,5,8,9현황대지[구체적사항감정서확인]
		동소 63-53 180㎡	대		
		동소 66-68 379㎡[현황대]	종교용지		
		동소 66-55 84㎡[현황대]	도로		
		동소 산66-48 65㎡[현황대]	임야		
		광산구 사암로 896 [비아동,가동] 94.91㎡ 제시외 창고 등 39.6㎡	자동차관련시설		
		동소 896 [비아동,나동] 38㎡[현황72㎡]	근린시설		
		광산구 도천동 1-22 414㎡[현황대]	종교용지		
		동소 1-57 151㎡[현황대]	도로		
		동소 1-22 92.38㎡ 액화석유가스충전소69㎡[현황96㎡] 제시외 차고 등 194㎡	사무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1. 18.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1. 25. [목]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진안